

지속가능한 성장과 따뜻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 현장 전문가 간담회 개최

- 양극화 심화,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
- 협동조합은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로서 지역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'따뜻한 공동체' 실현에 구심점이 될 것
- 앞으로도 ^{가칭}미래비전 2050 및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('26~'28)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갈 계획

기획예산처는 '26.1.14(수) 14시,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사회적기업진흥원, 전국협동조합협의회, 돌봄·복지·에너지 등 분야별 협동조합연합회 등과 사회연대경제 발전방향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여, ^{가칭}미래비전 2050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('26~'28) 수립 등에 반영할 정책제언을 수렴하였다.

< 협동조합 현장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26.1.14(수), 14시 / 한국재정정보원 9층 회의실
- 참석자 : (기획예산처) 이병연 기획예산처 통합성장정책관, 상생협력전략과장 등 (관계기관) 사회적기업진흥원, 보건사회연구원(협동조합 기본계획 관련 용역) (협의회) 전국협동조합협의회, 발달장애·의료복지·시민발전연합회 등 3개
* 전국협동조합협의회, 발달장애지원이종협동조합연합회,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등

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양극화 심화, 지방소멸 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회연대경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. 또한, 사회연대경제 핵심 주체인 협동조합은 민주적 운영, 조합원 간 이익공유, 지역 구성원 참여 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구성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'따뜻한 공동체' 실현에 구심점으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하였다.

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도 **사회연대경제와 협동조합이 시장과 공공의 역할을 모두 보완하며 지역 단위에서 삶의 필수영역을 뒷받침하는 핵심주체로 자리매김해야** 한다고 언급하였다. 또한 사회연대경제의 성장전략을 **가칭미래비전 2050 등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에 포함시켜** 앞으로 사회연대경제가 **지역경제, 복지, 돌봄을 연결하는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** 한다고 강조하였다.

한편, 오늘 간담회에서는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과제에 대한 현장 의견이 제기되었다. 참석자들은 협동조합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**재정·세제 지원,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** 강조하였다. 또한, **협동조합 설립·운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법·제도 정비의 필요성을** 제시하고, 협동조합 간 연대·협력을 제고하기 위한 **연합회 역할 강화방안**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.

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이날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**가칭미래비전 2050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('26~'28)** 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앞으로도 정부는 협동조합 관련 학계·업계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하여 **협동조합이 내실있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**이다.

담당 부서	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상생협력전략과	책임자	과 장	전보람 (044-214-1750)
		담당자	사무관	배준혜 (jhae10@korea.kr)

